

#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포기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서 장보고 퇴근길 공사장 위험한 고층 작업

##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2> 안전한 곳 없는 회원 김불안씨의 하루

주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세월호 침몰·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나온다.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언제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을 지 나타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라는 우려가 나온다.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이후 '잊지 말자'는 각오는 흐릿해졌다.

현실은 '살마'와 '난, 괜찮을거야'라는 낙관주의에 원칙과 기본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일상 속 안전 불감증은 어느 수준일까.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를 이용해 가상으로 평소 감춰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안전 취약(脆弱) 요소들을 들여다봤다.

회사이인 김불안씨는 14일 오전 건축한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나와 대학원 강의를 위해 대학교로 향했다. '소방차 전용'이라고 쓰여진 주차 공간엔 1t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뺨뺨하게 주차돼 있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는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살기도 힘든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선뜻 보수·시설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를 듣기 위해 대학교로 가는 도중 5층 건물 공사장을 지나쳤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인부들이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 게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불안한 시선을 돌리니 LP 가스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상가가 눈에 들어왔다. 여름철, 장시간 에어컨 가동으로 실외기 모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자칫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함도 떠나질 않았다. 승용차로 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앞서는 화물차를 피하느라 진땀을 뺐다. 화물 적재불량 차량이 하루에 220대꼴로 적발되고 지난 5년 간 허술하게 묶은 화물을 가득 싣고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교통사고만 전국에서 198건이나 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떠올라 아찔했다.

김씨가 대학원 강의를 위해 도착한 국립대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적지 않지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남대학교(본교), 목포대학교(목포 제2캠퍼스)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가 수업을 끝낸 뒤 간 곳은 양동시장. 저렴한 상품이 많아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꺼려질 때도 많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양동시장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 19개 시장 뿐 아니라 전국 200개 전통시장의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시장의 18.5%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현상은 광주·전남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 3일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 5층짜리 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장비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재래시장 80%는 자동 소화시설 없어

대학교 30년 이상 건물에 30% 이상

유치원·초·중·고 안전사고 매년 급증

만 자동식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췄고 80%는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숨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 간단한 소풍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어린 아이인데다, 학교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세인 탓에 조마조마하다. 이예리 새누리당 의원의 '2010~2014년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2년 10만365건이던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해 10만5088건으로 증가했다.

김씨는 학교를 마치고 나온 딸의 학원 시간을 기다리며 잠시 잠을 내 PC방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거러져서 보내줘야 할 서

류를 작성해야 하고 딸도 잠깐 새로 나온 게임을 하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이다.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상가에서 내놓은 온갖 집기류가 계단을 막고 서 있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 동구 점질방 화재때도 5층에서 6층으로 가는 계단에 의자 등이 쌓여있어 소방당국의 지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어 점질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광주지역 아파트·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2만6096개 중 2만5267개소에 대한 소방특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3892건이 불량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3만6424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3119건을 적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획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 광주·전남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 결과

	점검대상 (개소)	점검실시	양 호	불량 (개소)	불량건수
광주	2만5267	2만3712 (96.8%)	2만2863	849	3892
전남	3만6424	3만6424 (100%)	3만5155	1269	3119

(광주·전남 소방본부)

### ■ 재래시장 소화설비 설치 현황 및 관리

구분	소화기 (보유 소화기 / 점포수)	자동식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광주/전남	45.6% (941/2064)	10.5% (2/19)	0% (0/19)	36.8% (7/19)	5.3% (1/19)	21.1% (4/19)
전북	23.4% (290/1237)	0% (0/10)	0% (0/10)	10.0% (1/10)	0% (0/10)	10.0% (1/10)
제주	28.7% (66/230)	66.7% (2/3)	0% (0/3)	33.3% (1/3)	0% (0/3)	66.7% (2/3)
소계	36.7% (11297/3531)	12.5% (4/32)	0% (0/32)	28.1% (9/32)	3.1% (1/32)	21.9% (7/32)

(한국소방안전협회 2013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중)

###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찬 비상계단



### 가스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나란히



### 대피 안내도 따라가니 비상구는 막혀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